

국어영역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유형문제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어휘를 선정 · 구별하는 방법 제시
- 교과서 배경지식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 함양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문법/화법/작문 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 문이리라.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 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 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 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 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 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 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 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 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받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 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3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 정 3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 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문법/화법/작문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 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휘를 선정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 이 보다 쉽게 **지식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올림



차례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18
유형모의 36	
02. 형태론	30
유형모의 41	
03. 통사론	48
유형모의 61	
04. 담화 의미 변화국어 생활	67
유형모의 75	
05. 국어의 변천사와 혼민정음	79
유형모의 89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94
유형모의 118	

제2부 화법

☞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화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28
화법 1. 교과서 배경지식	
01. 화법의 본질	138
02. 화법의 원리	141
03. 화법의 실제	147
화법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사실적 파악	156
유형모의 167	
02. 화제, 주제 파악	176
유형모의 180	
03. 전제, 논거와 주장	185
유형모의 191	
04.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과 새로운 판단 이끌어내기	195
유형모의 204	
05. 말하기의 특성과 비판평가	216
유형모의 229	

제3부 작문

☞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작문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246
작문 1. 교과서 배경지식	256
작문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구상개요	260
유형모의 285	
02. 자료소재	300
유형모의 330	
03. 주제주제문	344
유형모의 356	
04. 요약	367
유형모의 371	
05. 머리말 쓰기	377
유형모의 380	
06. 본문 쓰기	385
유형모의 409	
07. 맺음말 쓰기	419
유형모의 424	
08. 단어의 선정	428
유형모의 455	
09. 문장 고치기	460
유형모의 474	
10. 문단 고치기	478
유형모의 490	

제4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 제1, 2, 3부 문법/화법/작문

☞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문법/화법/작문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심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2 원리는 이렇다 

3 방법은 있다 

06 본문쓰기[예제]

5-2 머리말쓰기[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구상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고 정답 찾기** 주제와 관련시켜 볼 때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조사의 내용 중 '자전거 등 에너지 절약 수단'의 보급 현황이라는 항목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바꾸기** ㉠ 유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관련 부처나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 인력과 관련된 일이므로 적절하다. ㉢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향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비 지원 증대라는 내용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나. 제4부 방법은 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㉔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가. A, B형 공통 문제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1부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조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1동]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²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 **문항 분석** 단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같이㉑'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같이' 다음에 '차가운' 등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서는 '매일같이' 다음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오지 않고 '지하철'이라는 명사가 오고 있어 '같이㉑'의 용례가 될 수 없다. 이때의 '같이'는 '같이㉒'의 용례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같이' '㉑'에서 ㉑는 부사임을 나타내고 '㉒'에서 ㉒는 조사임을 나타낸다.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에서 둘 다 '함께'의 의미가 공유되어 있어 동일 어근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같이하다'는 '같이'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자 복합어이다.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를 '【(…과)…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가지 문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를 사용하면 세 자리 서술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⑤ '같이하다' ①의 용례로 '=함께하다①'과 그 의미나 용법이 같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답** ②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법에 맞는 문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으 있디로 정답 찾기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뽑아보면 ‘사람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은 ‘후’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도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후’는 ‘후에’의 준말로 부사어로 문법에 맞다. 또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는 ‘관형어+부사어+부사어+관형어+관형어’ 형태의 구조로 문법에 맞다.

● 오답 바꾸기 ① ‘발전해’를 ‘발전시켜’로 고쳐야 된다. ③ ‘따라’를 ‘따른’으로 고쳐야 된다. ④ ‘요점은’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므로 서술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된다. ⑤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를 ‘학생들이’의 서술어가 되게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로 고쳐야 된다.

✓ 해답 ②

나. A형 문제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솟도 → [숏뜨], 옷고름 → [은꼬름]
 ㉣ 닦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입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③ ㉢, ㉣ : ‘깊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에 적용된 원칙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 ㉣에서 7 대표음이 아닌 받침 뒤에 자음이 이어지면 받침은 모두 대표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바뀐다. ㉣에서 ‘닦는’은 [당는] → [당는], ‘부엌문’은 [부엌문] → [부엌문] 등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7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 자음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에서는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 ㉣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에서는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ㅁ의 영향으로 ㅌ이 대표음인 ㄷ을 거쳐 ㄴ으로 발음되더라도 ㅁ은 조음 위치로 보아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고 ㅌ, ㄷ, ㄴ은 모두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조음 위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자음 동화에서 조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구개음화에서는 조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⑤ ‘얹고 → [안꼬]’에서는 ㄹ의 일부인 ㄱ이 탈락하여 ㄴ으로 바뀌고 뒤에 ‘ㄱ, ㄷ, ㅂ, ㅅ’과 같은 자음으로 이어지는 어미가 왔을 경우에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락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맞다. 이를 ㉣에 적용시켜 보면 ‘입지’에서는 받침의 일부인 ㄹ이, ‘훑거나’에서는 ㅌ이 탈락했다. 그러나 ㉣에서는 ㄱ과 ㅋ은 하나의 자음으로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참고로 ㄱ, ㄷ, ㅂ, ㅅ, ㅈ 등의 겹받침은 하나의 자음이다.

이들이 각각 ㄱ, ㄷ, ㅂ, ㅅ, ㅈ 등으로 바뀌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다.

✓ 해답 ③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조사, 어간, 선어말 어미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으 옳다로 정답 찾기 조사 은/는은 체언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어간 ·-들은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가 모음으로 시작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반드시 어간과 어미 사이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앞모음이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이러한 점의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⑤ 조사 ‘은/는’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지만 어간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단어의 자격이 없다. 또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해답 ③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서술어의 용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의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라는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이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라는 말이므로 ‘안경 벗고 있어도’란 구절은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 **오답 비루기** ① ‘양치질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B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 ⑤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이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넥타이를 맨 상태이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매답** ④

다. B형 문제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보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ㅅ]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ㅂ]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뭇+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표준 발음과 이에 적용된 원칙이 옳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닭+하고’에서 ‘닭’은 ㉡의 “겹받침 ‘ㄱ, ㄴ’은 [ㄱ]으로 발음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닥]으로 발음하고, 이 [닥]이 ‘하고’를 만나 [다카고]로 발음한다. 이때 적용된 원칙은 ㉤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여덜비]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이다. ② [목슬]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이다. ③ [흑만]으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 ㉢이다. ④ [갑까지]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이다.
- ✓ **해답** 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맞춤법 규정에 알맞은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는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합성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옷소매’는 [운쓰매]로 발음되는 합성어이나 어법에 맞게 ‘옷소매’로, ‘밥알’은 [바벌]로 발음되는 합성어이나 어법에 맞게 ‘밥알’로 표기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이나 ‘얼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이다. ② ‘마소’는 소리대로 적은 합성어이나 ‘낮잠’은 어법에 맞게 적은 합성어이다. ③ ‘웃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이고 ‘바가지’는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⑤ ‘꿈’은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이나 ‘사랑니’는 소리대로 적은 합성어이다.

✓ **해답** ④

13 <보기>의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㉑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 뭐? ㉒저거?

아들 : 네, ㉓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㉔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 그래? 그러면 ㉕어제였네. ㉖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 그래. 알았어, ㉗우리 아들. ㉘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㉑과 ㉔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㉑과 ㉗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㉒과 ㉓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㉔과 ㉕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㉖과 ㉘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지시어나 호칭어의 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기로 정답 찾기**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인 '아들 :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라는 말에서 '엄마와 아들인 '영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아닌 ㉔의 '누나'는 영수의 누나로 화자나 청자가 아닌 제삼자이다. 그러나 ㉔의 '영수'는 청자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엄마'는 청자 아들 영수의 관점이고 '누나'는 청자 아들 영수의 관점이다. ② 각각 아들과 엄마의 첫 번째 대화에서 '엄마와 아들인 '영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는데 ㉑은 '엄마'를 ㉗은 '아들'인 영수를 가리키므로 두 사람 다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③ ㉒, ㉓ 둘 다 '20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인 것을 가리킨다. ④ ㉔은 '2015년 12월 30일'을 가리키고 '엄마'는 ㉕을 '어제'로 확인하고 있다.
- ✓ **해답** 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王(왕)이 니르샤되 大師(대사) ㉠하산 일 아니면 다희 혼 거시잇고 ㉡仙人
(선인)이 슬보되 大王(대왕)하 이 ㉢南嶽(남굴)스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世間(세간)애 ㉤쉽디 못하니 그 썩 하늬 ㉥時
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 | 나누니이다 -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
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
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아’와 ㉣의 ‘이’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고어를 현대어로 고쳐서 생각할 때 그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아’와 ㉣의 ‘이’와 관련된 현대어 풀이는 ‘선인이 아뢰되’, ‘연꽃이 납니다.’ 등으로 되어 있다. 현대어로 보아 ‘선인이’는 주어이고 ‘연꽃이’도 주어이다. 참고로 고어에서는 받침 아래에서는 ‘-아’가, 모음 아래에서는 ‘이’가 주격 조사로 쓰였다.
- **오답 비루기** ① 현대어 풀이 ‘하산’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③ 현대어 풀이에 ‘스’을 관형격 조사 ‘-의’로 풀이하고 있다. ④ ㉤과 ㉥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나 현대어 풀이에는 동일한 부사격 조사 ‘-애’로 되어 있다. ⑤ ‘-디’가 ‘-지’로 바뀌는 것이 구개음화이다.
- **해답** ②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개념어·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목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주제어] 사회성, 불역성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주제어] 역사성, 가역성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주제어] 분절성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주제어] 규칙성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된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뛰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주제어] 추상성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재목이 되고 재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개념어·어휘·크리닉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예사소리 피열음 -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어 ……	자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보조 어간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출문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곰’과 ‘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눈’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ㄱ과 ㄴ이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

① 자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선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예사소리	된소리					
인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ㅍ	ㅑ		ㅋ		
		거센소리	ㅍ	ㅑ		ㅋ		
	파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된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유음	ㅁ	ㄴ		ㅇ		
				ㄹ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ㅜ	ㅡ	ㅛ
중모음	ㅔ	ㅟ	ㅓ	ㅝ
저모음	ㅐ		ㅑ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눈], 눈[눈] / 말[말], 말[말, ㅏ]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입 → [압]	
	자음 동화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 ㅕ’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공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튀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솜이불 → [솜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ㄸ, ㅉ,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ㅊ’로 바뀌거나 ‘ㄴ, ㄷ’가 ‘ㅏ, ㅑ’ 앞에서 ‘ㅓ, ㅕ’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뜰’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뜰의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03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p>(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블)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p>(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눈</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길게 발음할 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짧게 발음할 때</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눈이 펄펄 내린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다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뀌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답** ②

04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답** ①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앓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닭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쌀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 ㉡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모의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고'는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티'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나'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실타]의 '르'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나'은 비음이다. ④ [잘따]의 '뜨'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따]의 '뜨'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항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배리기 ① '즈'이 'ㅈ'으로 교체되었다. ② '쿠'이 '기'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기'이 'ㅋ'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에서는 '약'이 [낙]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엿'도 [콩녘]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배리기 ② '복낙'이 [봉낙]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웃'이 [문]으로 바뀌었다. ④ '입'이 [닙]으로 바뀌었다. ⑤ '문답'이 [문닙]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항 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않아'는 [아나]로 발음되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배리기 ① 'ㅎ'과 '기'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기'와 '나'가 만나 'ㅋ'로 축약되었다. ⑤ '고'와 '나'가 만나 '과'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항 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젓히다'에서는 '즈'이 'ㅎ'을 만나 '츠'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배리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ㄹ'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ㄷ'이 된소리 '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